

사람 속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분신

이슬을 내리는 자가 정도령, 생미륵 불, 구세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7년 동안 정역을 살고 나올 때까지 제단에 나왔던 것은, 이 사람이 진짜 구세주이기 때문이죠? 감로를 내리는 자가 진짜예요. 예수도 감로를 내려 보지 못했고 석가모니도 감로를 내리지 못했어. 생미륵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미륵불이 나타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지 않게 된다고 불경에는 쓰여 있어요. 성경에도 이슬성신이 내리면 이 땅에서 죽음을 내어 준다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쓰여 있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 땅이라면 이 지구 땅을 말하는 거죠? 이 지구 땅 위에서 죽을 사람이 없어~ 이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죽을 사람이 없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이슬 내리는 사람이 정도령이요, 생미륵불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나 불경이나 격암유록에 뚜렷하게 쓰여 있었죠? 그러나 이슬 내리는 정도만 가지고 진짜 구세주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이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영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어, 못 봤어?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영을 죽여요.

사람 속에 내리는 의식이 바로 사자귀신이에요. 내리는 의식이 사자귀신이기 때문에 고집이 센 사람이 일찍 죽어요. 또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짧아서 죽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리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자귀신한테 먹혀 가지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순간에 억조만 개의 사자귀신을 죽여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

어요. 그게 구세주요. 사람 속에 생명이 바로 이 사람의 분신이에요. 안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생명도 역시 이 사람의 분신이에요. 이 사람의 분신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구세주가 되는 거지,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말씀이 격암유록 은비가에 쓰여 있었죠? “삼진신중 일인출이라.”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말씀인데 그 사람이 바로 구세주요, 정도령이요, 생미륵불이예요.

그러고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면 인간세상이 없어져버려요. 인간 세상이 없어진다는 건 인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진다는 건 사람을 전부 죽인다는 거죠?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만들려고 왔어요.

사람은 하늘나라,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어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이였어요. 아담과 헤와가 인간의 조상인데 그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이였었다고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어요?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이 틀림 없다는 걸 뭘 봐서 알 수 있느냐면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에덴동산이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



구세주 조희성님

예요? 하늘나라요? 에덴동산이 하늘나라인 고로 하늘나라에서 아담과 헤와가 살았다는 것은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이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쓰여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늘나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지, 하나님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똑바로 쓰여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더러 자기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자기만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생활 수도 없고 사람 몸으로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되어야 안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오신 우리 김 선생님께서 안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됩니까? 그대로 되죠?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보통 복이예요, 엄청난 복이예요?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래요. 오늘 온 사람들은 전부 선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선물이나 하면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오늘까지 20년 동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됐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암만 봐도 사람인데 하나님 됐다 게 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야!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전부 아담과 헤와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자식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글이 잘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었다고 그러죠? 거짓말이 그게 학문이야? 거짓말은 학문이 아니예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었죠?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성경을 사서 한 번 보세요. 거기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하나님 자식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적인 말이예요. 비성경적인 말이예요?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자를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한1서 3장 2절에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자녀니라.” 이렇게 똑똑하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쓰여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자기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외쳤으니... 이 말은 왜 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가 마귀 신을 받았어요. 마귀 신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었죠? 마귀 신을 받은 고로 하나님의 자식인 사람들과 하나님 간에 이간질을 불어려 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면 전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할까, 노력을 안 할까? 노력하면 하나님 될까, 안 될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까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못박기 위해서 자기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불어려 온 사람이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나는 정확하게 논해요. 성경에 예수가 마귀새끼라는 것이 쓰여 있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면 마귀 영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공중신이 악신이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늘에는 마귀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가 가리사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이게 예수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사탄 즉 마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늘만 보고 ‘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놈은 이게 마귀새끼야, 사람 새끼야? 그건 마귀 새끼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늘쪽에 계시는 줄 알고 있고요. 그게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생명이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여 있어요. 그러고로 사람 속에 다 생명이 있죠? 사람 속에 생명이 전부 하나님이예요. 사람이 전부 하나님 자식이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식 속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생명이 하나님

2001년 5월 1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9) 공중권세 잡은 마귀 신이 재앙을 내리다 - ①

공중하늘에 있는 마귀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이고 또 나일 강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땅 위로 올라오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는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을, 마귀가 지금까지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 위해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재앙을 획책하였습니다. 애굽의 술객에 의해서 생긴 개구리가 산더미처럼



네 번째 재앙 : 고센 땅을 제외한 파리떼

(9) 공중권세 잡은 마귀 신이 재앙을 내리다 - ①

쌓여 죽어갈 때, 그 속에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가 엄청나게 번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되지 않아 애굽 온 땅에 파리 떼가 뒤덮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파리 떼는 애굽 왕의 궁성을 비롯하여 신하의 집,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가득차서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만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흥계를 아시고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를 사전에 차단하셨던 까닭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왕은 당황하여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이 파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소 자, 당신네 원대로 이 고센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내가 허락하겠소.”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애굽 사람 앞에서 우리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

큰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돌로 우리들을 쳐 죽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애굽 왕은 온 나라에 가득 찬 파리로 인하여 할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너무 멀리 나가지는 말고 제사를 드리는 대로 곧장 돌아와야 하오 자, 빨리 이번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이 파리가 없어지도록.”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왕 앞에서 물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세는 파리를 없애달라고 여호와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파리가 없어지자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나가서 못하게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애굽 왕을 찾아가서 말하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다가올 재앙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애



다섯 번째 재앙 : 가축들의 돌림병

굽 왕을 찾아가서 엄숙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심한 돌림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나가서 못하게 하면 당신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모든 가축으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공중신 마귀는 지난번에 죽은 개구리의 무더기에서 번식한 파리를 이용하여, 애굽의 온 땅에 있는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수작을 미리 간파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경고한

대로 애굽 사람의 가축은 죄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은 신하를 시켜 사정을 알아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 가겠다는 청은 여전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마귀가 내릴 재앙이 무엇인

지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에는 악성종기가 애굽 전역에 유행하게 될 것인데, 가축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미치리니, 악성종기에 걸린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술객들은 풀무의 재를 뒤집어쓰고 탄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는데, 유독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레도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겠다는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곳적부터 공중신 마귀와 전쟁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춘 자(승리의 하나님)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얻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본격적인 결전을 위한 예비단계로 이스라엘 백성



여섯 번째 재앙 : 악성종기의 유행

들의 출애굽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깊은 내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중권세 잡은 마귀신은 공중하늘에 썩비구름을 가득 모으고 있었습니다. 썩비구름을 모으는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주먹만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경고하라.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은 집안으로 들어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우박에 맞아 그 자리에서 다 죽으리라.”(다음호에 계속)*

안젤라